

# 1차 통과 수험생, 집단면접 대비

##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 ⑨ 경찰대·사관학교

경찰대, 국·수 쉽고 영어 어려워  
2차 시험, 면접 형식·내용 파악  
정시선발선 수능 영향력 절대적



김명찬 총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지난 7월 28일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됐다. 경찰대, 사관학교 모두 1차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지필고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찰대,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고 시험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대 1차 시험은 국어와 수학은 전년 대비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체감난이도가 높았다. 경찰대는 올해 수학의 시험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번 시험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의 체감난이도는 낮아진 반면 영어의 체감난이도는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능 유형과 유사하지만, 국어에서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 아주 높은 점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가우스합수, 상용로그 등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수능 유형과는 차별화되는 경찰대 특유의 출제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영어는 특히 경찰대와 사관학교 모두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영어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보다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에 첫 적

용됐고 올해 2년차다. 따라서 영어가 수능시험에서는 절대평가로 인해 영향력이 줄었지만, 경찰대와 사관학교 1차시험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의 수학시험이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반면, 사관학교의 경우 수학기(자연계), 수학나(인문계)로 분리되어 수능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올해 사관학교 수학시험의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수학가는 전년대비 약간 쉬웠던 반면 수학나는 전년 대비 약간 어려웠다. 수학나의 경우 수능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차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체력검사와 면접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에서는 개별면접 이외에도 집단토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지만, 정시선발의 경우 수능의 반영비율이 아주 높으므로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SPC그룹은 매년 진행되는 SPC식품과학대학의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양 기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018학년도 SPC식품과학대학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모습. /경희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 SPC 장학생 4명에 1600만원 지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식품그룹 SPC그룹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장학생 4명을 선발해 장학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는 SPC그룹의 (주)파리크라상이 직접 운영하는 제과·제빵·요리·커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카페 파스쿠치, 던킨도너츠 등 유명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카페 음료 과정, 커피 기초 입문 과정,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번엔 선발된 장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카페 음료과정에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권한결 씨(2018학번), 커피 기초 입문 과정에는 외식조리경영학과 이슬 씨(2015학번),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에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권동영 씨(2016학번)와 외식조리경영학과 최아영 씨(2016학번)가 각각 최종 선발됐다.

카페 음료과정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된 권한결 씨는 "커피와 요리에 관심이 많지만, 음료에 관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음료 분야에 지원하게 됐다"며 "새로운 음료를 만들고 창업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r

# 상반기 이직자 절반 “연봉 평균 148만원 올랐다”

## 잡코리아 이직자 621명 설문조사

“직급상승으로 연봉 ↑”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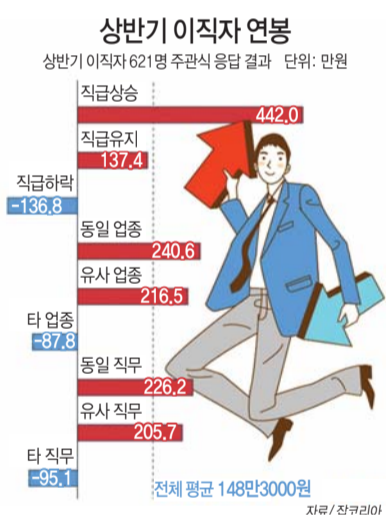
“타 직종 이직엔 연봉 ↓” 43.1%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과 함께 연봉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업종으로 직급을 높여 이직하는 경우 연봉 인상폭이 가장 컸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시 연봉이 가장 크게 올랐다.

2월 잡코리아가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했다는 직장인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직 성공 직장인 54.3%가 '이직과 함께 연봉이 올랐다'고 했다. 반면 24.8%는 '연봉이 같은 수준'이라고 했고, '오히려 연봉이 낮아졌다'는 직장인도 20.9%나 됐다.

이직 과정에서 연봉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급 상승'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별 분석 결과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73.6%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직급 유지 그룹의 경우 58.0%, ▲직급 하락 그룹은 38.9%로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업종 및 직무 전환 여부에 따라서는



▲동일업종(60.8%)이나 ▲동일직무(60.1%)로 이직했을 때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업 유형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 (69.7%) 주로 연봉이 올랐다.

반면 '이직 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전혀 다른 직무로 이직한 경우 43.1%로 가장 높았다. 직무가 전혀 달라진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은 '연봉이 깎였다'는 응답보다 약 9%p 가량 적었다. 또 ▲전혀 다른 업종(39.9%)으로 이직한 경우, ▲직급이 하락(36.1%)한 경우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직자 1인당 연봉 증감액은 평균 14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증가한 그룹의 연봉 인상액은 1인 평균 449만5000원이었으며, ▲연봉이 감소한 그룹은 이전 직장보다 평균 457만원이 낮아졌다.

연봉 증가폭은 기업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들의 연봉은 평균 65만7000원이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에서 몸값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 감소액이 평균 6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평균 219만1000원이 증가했는데, 몸값을 높인 직장인의 순수 증가액만 집계하면 평균 527만4000원에 달했다.

직급의 변화에 따라서는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평균 442만원이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직급 하락 그룹은 평균 136만8000원이 깎여 이직에 따른 연봉 편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이직한 경우 240만6000원, ▲동일 직무는 226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타 직무(-95만1000원) 및 ▲타 업종(-87만8000원)으로 이직한 경우 연봉이 오히려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진중현 교수

### 한국육종학회 연구상 수상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바이오산업융합학과 진중현 교수가 한국육종학회가 수여하는 '2018 한국육종학회 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진 교수의 수상 논문은 '벼의 인디카-자포니카 교잡 집단에서 잡종강세 현상에 관여하는 양적형질유전자좌와 동정'이다. 양적형질유전자좌란 다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형질에 연관된 염색체 상의 유전자 그룹을 의미한다. 벼의 두가지 생태형인 '인디카', '자포니카'의 교잡시 발생하는 잡종불임 현상이 간섭하는 잡종



세종대 바이오산업융합학과 진중현 교수가 최근 '2018 한국육종학회 연구상'을 수상했다. /세종대

강세 현상의 분석법에 대해 다뤘다. 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식량작물과 약용작물 품종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도록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서울여대

### 여고생 바롬인성교육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는 1일~2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제19회 바롬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바롬예비대학은 서울여대의 특화된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고교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틀간 조별 비경쟁 협동놀이 통해 화합과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길을 찾는 나 ▲함께 하는 나 ▲꿈을 꾸는 나 ▲미래로 가는 나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게 된다.

### 상명대 대학원-합동군사대학교

### 학점인정 운영협약 체결

상명대학교대학원(원장 권찬호)은 지난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캠퍼스 중회의실에서 합동군사대학교와 학점인정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18학년도 상명대 대학원 국가안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합동군사대학교 수료자는 6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되고 1개 학기 수업연한이 단축된다.

협약식에는 백웅기 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권찬호 대학원장, 박정란 대학원부



(왼쪽부터) 서천규 교수부장, 백웅기 총장, 권찬호 대학원장 /상명대

원장이 참석했고, 합동군사대학교에서는 서천규 교수부장, 사윤권 연구조정관, 이정현 평가과장, 남팔개 교육체계발전 담당, 교수학습개발과 최정빈 교수가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 에스티유니타스 에듀테크 기술로 '관리형 과외' 론칭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는 오프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한계를 혁신한 신개념 '관리형 과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형 과외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중고등학생 과외를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1명의 선생님이 3명의 학생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집중

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학생들이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업 무단 결석이나 과제 미수행, 테스트 미응시 등의 결격 사유 발생시 경고가 주어지고, 3회 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랜 연구 끝에 1명의 선생님과 3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시



스템이 가장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환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이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춘 화상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